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4. 10.(월) 11:00 < 4.11.(화) 조간 > 배포 2023. 4. 10.(월)

통상교섭본부장, 캐나다 의회 대표단 면담

-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대비, 한-캐 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 논의
- 양국 간 교역·투자 확대와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.10일(월), 캐나다 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, ▲양국 간 교역·투자 확대 ▲핵심광물 업무협약(MOU)의 조속한 체결 ▲양자 및 다자외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▲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였다.

* 참석자 : (우리 측) 통상교섭본부장, 미주통상과장 등, (캐 측) 유엔 포 우, 클레망 지냑 상원의원, 에드 페스트, 알리 에사시, 랜디 호박, 찬드라 아리아 하원의원

안 본부장은 한-캐나다 간 교역이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 '22년 163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*한 점을 언급하며,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**를 가진 양 국의 지속적인 상호발전을 위해 배터리,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하였다.

* 교역규모(백만불) : ('19년) 11,327 → ('20년) 9,879 → ('21년) 13,084 → ('22년) 16,977
** 교역구조 : (수출) 자동차, 철강, 휴대전화 등 완·반제품 ↔ (수입) 석탄, 철광, 동광 등 원자재

이에, 캐측 의원단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의 캐나다 진출*에 사의를 표하며, 양국 기업 간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-캐 공급망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.

* (전기차) LGES(한) - 마그나(캐) JV설립, (배터리) LGES - 스텔란티스 합작투자(온타리오, 4.1억불)
포스코케미칼-GM 합작투자(퀘백, 3.27억불), (AI) 삼성전자, LG전자 AI연구소 개설(토론토, 몬트리올) 등

이러한 배경에서, 양 측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논의 중인 핵심광물 협력 등 에너지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, 석탄·철광 등 범용광물 위주의 교역을 니켈·코발트 등 핵심광물**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

형성하였다.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는, 미(美)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대응 관련 우리업계의 핵심광물 조달능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핵심광물 캐나다 생산비중('21, %) : 티타늄 13.5(2위), 코발트 4.4(4위), 니켈 4.3(6위) 등

나아가, 양측은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우방국간 산업·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,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의견을 교환하였다.

끝으로, 안 본부장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캐나다 측 지지를 요청하면서, 공급망 협력 분야와 같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경제협력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차관보실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승헌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오인봉 (044-203-565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